

“불안한 한빛원전... 후쿠시마를 잊지말자”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 맞아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문제원전 조기 폐쇄 등 촉구

“복구비용 최대 800조원, 피난민만 5만 명. 광주전남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한번의 핵사고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

영광 한빛원전에서 직선거리로 40km 떨어진 광주 도심에서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8주기를 맞아 '문제 원전 조기 폐쇄·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충장동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지 8년째 되는 날이다. 8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핵사고 난민이 아직도 수만명에 이른다”며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잊어서 안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일본의 민간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후쿠시마 복구비용을 최대 800조원으로 예상하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방사능 오염이 22세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핵폐기물 반감기가 수만 년을 고려하면 ‘영원히 봉인된 후쿠시마’는 과한 표현이 아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시작된 관심은 자연스럽게 영광 한빛원전으로 옮겨갔다. 단체는 “광주에서 가까운 영광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수시로 설비 고장이



광주전남지역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세상 광주전남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를 맞는 11일 광주시 동구 충장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번 핵사고가 일어나면 끝이다. 관계당국은 한빛원전 4호기로 대표되는 문제 원전 조기폐쇄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어나고 있다. 격납건물(콘크리트 돔 모형) 내부 철판 부식, 구멍은 물론 최근 7개월 새 화재도 5번이나 발생했다”며 “가정집에서도 발생이 쉽지 않은 화재가 영광 핵발전소에서는 정기 화재진압 훈련하듯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원인을 밝히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정도의 대책이 고작이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 번의 핵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결코 돌이킬 수 없다”며 노후 원전 수명(40년) 연장 반대와 문제 원전 조기 폐쇄를 주장했다.

1986년 상업발전 들어간 한빛원전 1호기가 2025년 12월 22일 수명 만료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42년 6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설비 수명이 완료된다. 한빛 3·4호기는 수시로 설비고장을 일으키고 격납건물 철판 부식, 윤활유 유출 등 부실시공 의혹마저 짙은 상황이다.

광주지역 환경단체는 올해 초 ‘갑사원이 직접 한빛원전 시공 및 관리 부실에 대해 갑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핵없는세상 광주전남’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 광주·전남·순천·여수·목포 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권익위, 일자리 등 5대분야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날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료 등)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 분야 ▲환경·해양수산 분야다.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적

자가 특정인과 결탁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서울·세종 종합민원방문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 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 주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사임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이덕선 한유총연맹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사임했다.

이 이사장은 11일 입장문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사립유치원 운영자 자율권과 사유재산권을 확보해내지 못했다”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이사장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새 이사장을 선출할 26일 대의원 총회 때까지는 일단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당국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해 절차와 상관없이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해 지난 4일 유치원 개학을 미루는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유아와 학부모를 불모로 한 투쟁에 여론이 악화되고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개학연기 동맹 유치원은 한유총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한유총은 4일 바로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했다. 당시 이 이사장은 수일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8 해질 18:37 달뜨기 09:59 달지기 23:51

출근길 안개주의

대체로 흐리고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린뒤 맑음	3/14	보성	흐린뒤 맑음	1/14
목포	흐린뒤 맑음	4/12	순천	흐린뒤 맑음	5/15
여수	구름많음	5/14	영광	흐린뒤 맑음	2/12
나주	흐린뒤 맑음	0/14	진도	구름많음	3/12
완도	구름많음	5/14	전주	가끔흐리고비	4/11
구례	가끔흐리고비	1/14	군산	흐린뒤 맑음	3/9
강진	구름많음	3/15	남원	가끔흐리고비	3/13
해남	구름많음	1/13	흑산도	구름많음	6/11
장성	흐린뒤 맑음	0/13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5	북서~북	1.0~2.5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5	북서~북	1.5~3.0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5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1.0~2.0	서~북서	1.5~3.0
남해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1.5~2.5	북서~북	1.5~3.0

◇ 생활지수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44	05:35
22:59	17:41	
여수	06:07	00:13
	18:25	12:17

◇ 주간 날씨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	☀	☁	☀	☀	☀	☀
-1/10	-1/14	4/11	3/13	2/13	2/16	3/16

지리산 봄꽃 개화...예년보다 10일 일찍 '꽃망울'

지리산에 이상 고온으로 예년보다 일찍 봄꽃이 개화를 시작했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지리산 저지대 곳곳에 봄을 알리는 다양한 야생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개화 시기는 전년도보다 10일이나 빠른 것이다. 풍광 전망을 훑고 나오는 일명 ‘봄의 여신’인 복수초는 지난날 초부

터 화사하고 노란 자태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대표적인 봄의 전령인 산수유, 하이어리, 진달래, 매화나무 등이 활짝 폈다.

사무소 측은 앞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 현호색, 제비꽃, 큰굴슬봉이, 열매지, 파마물 등 다양한 봄꽃을 지리산 탐방로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학생 자치 탄압’ 광주과학고 교장 정직 3개월 징계

학생자치활동 탄압, 부적절한 국의 연수 의혹이 제기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광주과학고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과학고 교장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위반이었다. 시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1월 A 교장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국외여행, 학생의 활동 통제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광주일보 2019년 2월 15일자 6면>

A 교장은 교육청 감사 이후 “교직원들 관리·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소임에 충실했다”며 “생활·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져 엄격한 지도가 필요했다. 중징계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생회 간부 사퇴 중용 의혹과 부적절한 해외연수 지적에 대해선 “학생회 간부 사퇴건은 학부모들에게 해명한 바 있으며, 국외 연수의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 해외 연수에 앞서 관리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미리 답사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